

# 대학 자율성 강화는 어디로?... 가이드라인의 배신

〈선발 비율·방식〉

## 2개월 남은 2020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등 첫단추부터 논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때  
대학들 학생부 중심 축소 우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국민 400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정해진다. 특히 대학마다 고유 영역이던 선발 비율과 선발 방식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시에 관한 대학 자율성이 훼손될 것 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1일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수능 절대평가 여부) 3가지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세 사안 모두 수능의 영향력을 낮춰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자는 현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담겼다. 하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른 학생 선발 비율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대입 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도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지난해 8월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보한 뒤 다시 재차리로 돌아왔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가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은 학생부 성적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한다는 기조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변별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이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의

대입 영향력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학종과 정시 전형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해 교육계 진보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기존 정부 측 입장에 비해 공론화 범위를 넓혔고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포함돼 이전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이 지속되면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대입 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전가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시 교

육부에 미루거나 범위에서 누락시켰다”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해 대학에 권고할 경우 대학의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가 확정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연대는 “모집 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국민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정해 대학에 강제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반송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등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폐기 또는 추가 논의 여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우리는 미래 과학자”

대전시교육청이 1~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 ‘제1회 노벨 과학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 ‘노벨과 함께하는 꿈나무들의 과학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서는 노벨 탐구부스, 과학자 체험부스, 천문학자 체험부스, 노벨 과학상 수상 체험부스와 3D 프린터 렌 부스, 창의발명부스 등이 운영됐다. 과학 업적이 있으나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된 과학자를 선정, 시상해도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제1회 노벨 과학 말하기경연대회도 열렸다.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이 1~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 ‘제1회 노벨 과학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 ‘노벨과 함께하는 꿈나무들의 과학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서는 노벨 탐구부스, 과학자 체험부스, 천문학자 체험부스, 노벨 과학상 수상 체험부스와 3D 프린터 렌 부스, 창의발명부스 등이 운영됐다. 과학 업적이 있으나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된 과학자를 선정, 시상해도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제1회 노벨 과학 말하기경연대회도 열렸다. /연합뉴스

# 중앙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 7년간 총 113억원 연구비 지원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2018학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에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년간 총 11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중앙대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책임자 이강석 교수)는 미생물의 생존 매커니즘을 시스템 관점에서 규명해 미생물의 제어·활용 원천기술 개발을 연구 목표로 하며, 중앙대 생명과학부 교수 7명, 융



중앙대 전경. /중앙대학교

합공학부 교수 1명, 외부기관 교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

해 중앙대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센터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이화여대 ‘21세기형 혁신과 리더십’ NASA 신재원 박사 특강

이화여자대학교는 엘텔공과대학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학부장 신태훈)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4일 오전 11시 교내 신공학관 159호에서 ‘21세기형 혁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미국 NASA A(미국항공우주국) 신재원 박사(사진)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재원 박사는 1989년 버지니아텍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NASA에 입사했다.

지난 2008년 동양인 최초로 NASA 최고위직인 항공연구부부 총책임자를 맡아 항공 부문의 성장과 민간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학자이자 최고관리자다. /한용수 기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재활용 폐기물’ 심포지엄

환경부 지정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회장 최계운)는 환경의 날 기념 ‘순환사회 시대의 재활용(국민, 교육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4일 광화문 프레젠테이션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경부와 환경관련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실태, 국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선진화된 순환사회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어려서부터의 교육,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아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학교

## 인천재능대 일학습병행제 최우수 평가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 지난달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일학습병행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유니테크 부문 최우수상(S등급)과 재직자단계 부문 우수상(A등급)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일학습병행제 운영 4년차에 접어든 인천재능대는 재직자단계, 재학생(유니테크), 전문대 재학생단계 등 총 3개 분야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유형을 진행하는 전국 유일한 기관이다. /한용수 기자

## 남산도서관 수화로 그림책 읽는 ‘손누리 독서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관장 손영순)이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일 2·4째주 토요일 10시에 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손누리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손누리 독서회는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화로 독서활동을 함으로써 청각장애 학생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비장애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독서회는 남산도서관의 청각장애 사서인 이석민 자료정리팀장이 직접 지도한다. 학생들은 기초 수화를 먼저 배우고, 수화로 그림책을 읽은 후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된다.

독서회는 총 12회로 운영되며, 6개 주제의 수화 배우기와 6편의 그림책 읽기로 구성된다. 예컨대 1,2회차에는 ‘만나서



청소년 수화교실 활동 모습. /서울시교육청

만가워요, 자주 연락 나눌시다’라는 수화를 배우고,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를 읽는다.

남산도서관은 독서회 개설에 앞서 지난달 26일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화교실을 운영했다.

손누리 독서회 회원가입은 남산도서관 정보자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11-0126)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